

운할소식

SK (주)

SK 텔레콤 NATE Drive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사장 表文洙 www.sktelecom.com)이 2월20일부터 차량 운전자를 위한 신개념의 주 1) 텔레매틱스 서비스 'NATE Drive' 를 출시한다.

NATE Drive는 기존의 네비게이션 서비스와는 달리 무선망과 인공위성 위치추적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최상의 경로를 음성과 그래픽으로 제시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또한 NATE Drive 유선 홈페이지에서 목적지나 교통정보 요청 지점을 등록하면 차내 단말기를 통해 교통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무선 연계 서비스다.

SK텔레콤은 NATE Drive 서비스를 통해 2월 20일부터 교통상황이 반영된 빠른 길안내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주유소나 음식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변시설물찾기, 뉴스/증권/날씨/골프등의 생활정보, 차량이나 운전자의 위급상황 발생시 견인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ERS(Emergency Road Service)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휴대폰과 네비게이션키트가 필요하며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구입과 장착이 가능하고 차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NATE Drive 서비스 요금은 데이터 요금과 정보이용료로 구분되며, 데이터 요금은 기존의 패킷요금제, 정보이용료는 월 2만원의 정액요금

이 적용되며, 고객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SK(주)의 엔트랙과 공동으로 휴대폰에 이어 올해안에 PDA나 LCD 모니터로 NATE Drive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CD를 통한 경우 CCTV등에 의한 교통정보를 영상화면으로 볼 수 있으며 차량진단, 차량안전정보, 인터넷, TV시청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SK텔레콤 신규포털사업본부 박성균 본부장은 "서비스 초기에 1천2백만 기존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올해 25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2005년까지 12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 고 목표를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선포털인 NATE.COM과 PDA용 NATE 서비스에 이어 NATE Drive 를 출시함에 따라 유무선 통합서비스인 NATE를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셀석유(주)

제11회 2002 경제정의 기업상 수상(화학분야)

지난 2002년 2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경실련, 한겨레신문, MBC 문화방송사가 공동주최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한국셀석유 김동수 사장은 "환경과 안전은 셸(Shell) 그룹의 기본이념입니다. 이 부분이 최고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익이 나더라도 더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방침입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유행소식

한국셀석유는 특히 △건전성 △환경보호 △중업원 만족도 등의 분야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보호와 관련해 한국셀석유 사장은 “폐유 전량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으며, 경쟁사에 비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잦은 윤활유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유 발생을 막는데 힘쓰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수화학(주)

英 유망 바이오텍 기업에 지분투자 및 전략적 제휴

이수화학은 올해 첫 투자 사업으로 영국 유망 바이오텍 기업인 스캔셀(Scancell)사에 지분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했으며, 이 계약으로 외국 유망 바이오텍 기업인 스캔셀사 지분의 7.35%를 획득함과 동시에 항체특허기술 양수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개발을 하게 됨에 따라 항체 전문 기업으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수화학과 스캔셀사가 공동개발하기로 한 ‘항 EGF 수용체 항체’는 독일 머크사의 자회사인 Biovation사(스코틀랜드 소재)의 항체 비면역화 기술을 이용하여 스캔셀사가 개발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인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이 암세포에 과다발현 되는 것에 착안해 개발된 것으로서 암세포표면의 EGF 수용체(Receptor)와 EGF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괴사를 유도한다.

암의 종류를 떠나 EGFR이 과다발현된 암세

포에는 다 적용이 가능하며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글리백이나 허셉틴처럼 부작용이 없고 암세포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비면역화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과거 항체 제품의 문제였던 반복투여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기존에 화학요법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말기 암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수화학은 전세계적으로 항체시장은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30%를 차지할 만큼 커다란 규모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항체 기반 기술을 개발한 업체도 없었고 이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한 업체도 없었으므로, 이번 항체 기반 기술 도입으로 이를 이용한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항체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외 유망 바이오텍 업체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항체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또한, 스캔셀사와 ‘항 EGF 수용체 항체’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해 2006년도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항 EGF 수용체 항체’ 신약이 제품화되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9개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화학 생명공학 사업부문의 올해 첫 투자 기업인 영국 스캔셀(Scancell)사는 항체 전문 바이오텍 기업으로서 96년 창업 후 5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특정 항원에 대한 7개의 항체 제품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 유망 바이오텍 기업이다. 이미 세계적인 인간항체 제조기술 보유기업인 덴마크의 겐맵(Genmab)사와 4개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해 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윤활소식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폐윤활유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

폐윤활유도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 연간 150천톤의 원유 수입대체 효과
- 약 200억원 상당

'02. 2. 28. 황 두열 SK (주) 대표이사, 허 동수 LG-Caltex 정유 (주) 대표이사, 유 호기 S-OIL (주) 대표이사, 광 훈식 (사)한국윤활유공업 협회장은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폐윤활유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업체는 SK, LG-Caltex, S-OIL 등 총 24개 업체로 국내 윤활유 제조사 19업체, 윤활유 수입업체 5업체이다.

윤활유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은 '00년에 체결한 전자제품, 형광등과 '01년에 체결한 유리병, 금속캔, 타이어에 이어 6번째이다.

'02년도 폐윤활유 재활용량은 협약체결 이전인 '00년 재활용량 134천kl 보다 12%(16천kl) 증가된 150천kl를 재활용하게 된다.

'03년 재활용량은 '00년 보다 22천kl 증가된 156천kl이며, 재활용율은 발생량(200천kl 추정) 대비 78% 수준이다. '04년 재활용량은 '00년 보다 26천kl 증가된 160천kl로서 재활용율은 발생량(200천kl 추정) 대비 80% 수준이다.

윤활유는 자동차(95%)와 국내 선박용(외항선박용 제외)에사용되고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터, 선박 수리소에서 회수 한 후 감압증류, 이온정제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연료유로 재활용되나, 윤활유 사용수명 연장 등 품질향상으로 최근의 수요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번의 자발적협약으로 업체는 1,850백만원의 편익을 얻게 된다.

'02년의 경우 생산 예상량 200천kl에 대한 예치금 5,000백만원이 면제되고, 150천kl 재활용비용은 3,150백만원이 소모되므로 1,850백만원의 편

익이 발생된다.

$$\begin{aligned} * \text{예치금 면제} &: 200\text{천kl} (180\text{천톤}) \times 25\text{원/l} \\ &= 5,000\text{백만원}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재활용 비용} &: 150\text{천kl} (135\text{천톤}) \times 21\text{원/l} \\ &= 3,150\text{백만원} \end{aligned}$$

폐윤활유 150천kl('02 재활용 목표량)을 열원으로 이용하면,

기후변화협약으로 연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150천kl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 연간 234억원의 외화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56\text{원/l} \times 150\text{천kl} = 234\text{억원}$$

금번의 윤활유 생산자 재활용 자발적 협약 체결은 생산자재활용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00.2.4)되고 2003년 시행을 앞둔 시점에 체결되어 그 의미가 크다. 먼저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전자제품 등 5개 품목과 함께 폐윤활유도 2003년에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시행을 앞두고 재활용 목표량을 미리 설정한 셈이다.

<출처:환경부 보도자료>

에쏘석유코리아

에쏘석유코리아(주)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7층
 에쏘석유코리아(주)
 TEL : (02)3671-5012

한국혹스 윤활유

한국혹스윤활유(주)의 대표이사 민문호 사장님이 3월 6일자로 권성안 사장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